

이상민 해임 건의안 놓고 정치권 공방

민주 “국민 명령” vs 국회 “대선 불복”

박홍근 “이재명 방탄 주장 억지 생트집”

주호영 “민주당, 다수 의석 횡포 힘자랑”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렬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부 견제를 위한 안건 처리에 임했다면 좋는데, 일방적 항의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자 배려라는 일각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 생트집”이라고 비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처벌을 저지하기 위한 알뜰한 속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명분도 없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일을 왜 기어이 저지하려 하는지 생각해보셨나”며 “이재명의 체포와 처벌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 발목을 잡고 대선 불복을 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 자기 당 대표의 수사와 비리를 덮어가려는 책략으로써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십 년 만에 일요일 오전에 특별

결의가 필요한 본회의를 소집해 불신임 결의안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도 전에 대통령과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험자랑 못하도록 민주당 의석 좀 팔아달라”며 “국민들이 다수 의석 횡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다음 선거에서 험자랑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경고해주시고 힘을 빼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로써 정치는 사망했다. 대표 1명 살리겠다고 169명의 국회의원을 인질로 만들어 협치의 상징인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기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철현,尹정권 인권 침해 작심 비판 “야당에 대한 기획수사 조직적·악의적”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지난 9일 윤석열 정권의 표적·보복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 인권선언 74주년, 모두를 위한 존엄, 자유 그리고 정의’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윤 정권이 전입 정권과 야당에 대해 벌이고 있는 전방위적 탄압에 대해 작심하고 성토했다.

주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 정권 인사,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표적수사이며 정치 탄압에 다름 아니다”며 “전례를 찾기 어

려운 조직적·악의적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며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 범죄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없도록 헌법 기틀 이는 한편,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균형위 ‘광주·전남 지역공약토론회’

내일 DJ센터...7시간 마라톤 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오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역의 의견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지역 정책과제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이정현 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을 주재 하에 지역 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토론을 미팅 형식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세션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별 지역 정책과제에 대한 전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진다.

광주시의 경우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

성, 국가AI데이터센터·광주과기원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산단 및 발전단지 구축,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게 된다.

제3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김태환 부원장), 산업연구원(허문구 국가균형발전 연구센터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조창희 국가우주정책연구소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시·도별 중요 지역정책과제에 대한 제안·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은 “지역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면 광주·전남 발전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이며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열고자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 경색 뚜렷

회사채 평균 금리 4.09%→5.68%로 ‘급증’

김희재 “정부 무능한 대처로 경제적 피해 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등급 AAA급 우량채의 평균 금리가 5.68%대로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레고랜드 사태 직전인 8월 대비 1.6%p 가량 상승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을)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기업 회사채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10월부터 11월말(29일)까지 AAA급 회사채 19건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1조

2천400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의 AAA급 우량채의 평균 금리는 5.68%(단순 평균)로 분석됐다. 레고랜드 사태 발생 직전인 8월 대비 약 1.6%p 가량 상승한 것이다.

8월에는 11건, 1조4천250억원 규모의 AAA급 우량채 발행이 이뤄진 바 있다. 평균 금리는 4.09%였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 발전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8월 4.03%의 금리로 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 똑같은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은 11월 들어 똑같은 800억원의 회사채를 5.76%의 금리로 발행했다. 불과 3개월 사이 금리가 약 1.73%p 가량 뛰어오른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연간 채권 이자는 2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우량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8월 평균금리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 들어들게 될 비용을 추산한 결과다.

정부의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과 지난달 28일 추가로 발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환매 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감안하면 레고랜드발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시장 경색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AAA급 우량채를 포함한 전체 회사채 발행 금액은 11월 1조3천억원 뿐으로 1월 대비 5조5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발행 기업수도 1월 23개에서 11월 6개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김희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위기대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경제 초비상 상황에서마저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만 하고 갈등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예산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해임건의안 ‘87년 체제’ 후 5차례...尹정부선 두 명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출범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었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

임건의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된 것은 1987년 개헌 때이다. 이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지난 9월 29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 정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p>후지의료기 PFC-7900</p>  <p>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p> <p>주요기능: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를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p>	<p>후지의료기 JP-870</p>  <p>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일본 의료가기인증</p> <p>주요기능: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p>	<p>사파헬스케어 SF-5100</p>  <p>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롤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시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스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p>	<p>사파헬스케어 SF-5000</p>  <p>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롤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래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p>
---	---	---	---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